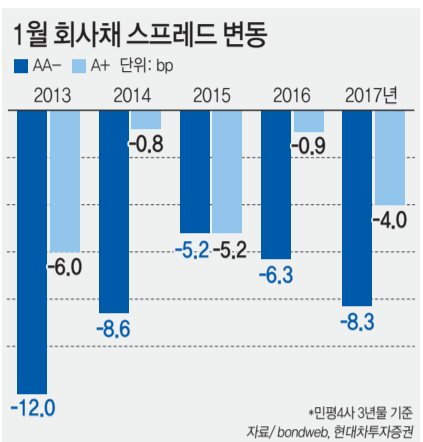


## 기업 “금리 오르기 전에 서두르자”

# 롯데·LG·신세계 등 社債 1.6조 발행

주요 기업 회사채 발행 대비 학습효과로 1월·2월에 집중 A등급 회사채 선호 여전할 듯



회사채 발행시장이 올 초에도 국내 기업들의 자금 조달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반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급증한 가계부채 등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0일 현대차투자증권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연합자산관리, 신세계, 롯데렌탈, LG상사 등이 1월 수요예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J네트웍스, 현대제철,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까지 더하면 발행 예상 규모는 1조6800억원이다.

다른 기업들도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발행을 검토 중이다.

국내 한 기업 관계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7월로 예상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장 분위기를 봐서 상반기 중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의 예상도 비슷하다.

KB증권 김수현 연구원은 “일부 차환요구가 있는 발행사를 중심으로 발행시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자금 여력이 있는 발행사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이로 인한 시중금리 영향 등을 확인 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모시장의 문을 두드린 곳도 있다. LG전자는 지난 4일 8년 만기 회사채 1200억원어치와 10년 만기 회사채 100억원어치를 사모로 조달했다.

기관 수요는 뒷받침되지만 1월 효과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하는 이들도 있다.

현대차투자증권 박진영 연구원은 “1월 발행시장은 강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학습효과에 따라 1월과 2월에 발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 자금집행 재개 등에 힘입어 투자수요 또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박대근 연구원은 “연말에 인출됐던 채권관련 투자자금이 연초에 재유입되면서 금리 메리트가 높은 크레디

채권 선호로 강세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2017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A등급 채권은 여전히 AA등급에 비해서 높은 가격 매력을 유지하고 있어 A등급 회사채 선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험상 수급 측면에서 1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사의 1월 채권 순매수, 순투자 비중이 연평균 8%를 상회한 해는 각각 2회, 3회에 불과하다. 분기 기준으로도 1분기 채권 순매수, 순투자 비중이 연평균치인 25%를 웃돈 적은 각각 3회에 그쳤다.

한편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무보증 회사채 규모는 45조1684억원 규모다. 이는 2017년 만기 추정액 43조원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기업들이 갚아야 할 돈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는 1분기다. 13조4154억원에 달한다. 이어 2분기 11조2544억원, 3분기 11조2147억원, 4분기 9조2833억원 규모다.

취약 업종의 만기 규모도 만만치 않다. 건설업에서는 1조4810억원, 조선 1조5950억원, 해운 970억원, 철강 1조730억원, 항공 9600억원, 에너지·화학 4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보다는 만기 도래액이 줄지만 금리 인상 여파로 해당 기업들은 말그대로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coul.co.kr



/오피스텔

## 25일부터 조정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도 제한

투기지역 적용된 규제 확대된 셈 미분양이나 25일 전에 구입해야

오는 25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지난해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적용됐던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5일 전 분양해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했거나 25일 이전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대표적인 임대수익형 상품으로 꼽힌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미분양이나 25일 이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은 소액투자가 가능해 부담도 적고 환금성도 양호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10일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 단기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투자 수요가 전매제한이 이뤄지기 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오피스텔 2곳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1블록에서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동탄테크노밸리 내 핵심입지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대형 종합병원인

힐스테이트 동탄성심병원이 있다. SRT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GTX A 노선이 개통한다. 힐스테이트 동탄은 679가구 중 오피스텔은 22·42㎡ 236실이다.

대창건설은 1월 중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 업무용지 2-1, 2-2블록에서 ‘미사 더오페라 2차’ 456실을 분양한다. 연내 개통예정인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올림픽대로 상일IC,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등 도로망이 인접해 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 내 이미 분양한 오피스텔도 이번 전매제한 규제를 벗어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신영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대에서 ‘성남 모란역 지웰 에스테이트’이 23~52㎡ 228실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2020년 말 예정), 판교 제3테크노밸리(2022년 예정)와 가깝다. 지하철 8호선 모란역과 수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종합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 업무시설 4구역에서 ‘다산 리코빌 파크뷰’ 24~58㎡, 350실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2022년 개통예정인 지하철 8호선 다산역이 도보 6분대에 위치해 있다. 외곽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헤도종합토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헤도 인파크 에비뉴 서면’ 20~34㎡, 334실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역세권 단지다. /이규성 기자 peace@

##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21조 돌파

전세계 운용사 순자산 규모 21위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 확대 평가 “앞으로 국내 넘어 해외에서 경쟁”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 글로벌 ETF(Exchange Traded Funds)의 순자산 총액이 200억 달러(200억 19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원화로는 21조원이 넘는 규모다.

한국 ‘TIGER ETF’ 8조원, 캐나다 ‘호라이즌 ETFs’ 7조 8000억원, 호주 ‘베타셰어즈’ 4조 3000억원을 비롯해 홍콩, 콜롬비아,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ETF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한해 총 6조원 넘게 증가했는데 한국 2조 3000억원, 캐나다와 호주에서 각각 1조 7000억원, 1조 4000억원이 늘어났다. ETF 별로는 TIGER200 ETF가 작년 1조 3000억원 넘게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고, 토론토 거래소 상장 대형주 60개에 투자하는 호라이즌S&P·TSX60 ETF가 6,300억원 넘게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늘어나 뒤를 이었다.

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 ETFGI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미래에셋 글로벌 ETF는 전세계 운용사 중 순자산 규모 21위를 기록 중이며, 연초이후 자금 순유입 규모에서는 17위를 차지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314개 운용사가 68개 거래소에서 약 4조5000억달러(4877조원 수준) 규

모로 5,287개 ETF를 운용 중이다.

2006년 TIGER ETF를 통해 ETF 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1년 캐나다 선두 ETF운용사인 ‘호라이즌 ETFs’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무엇보다 미래에셋 ETF는 섹터 ETF부터 글로벌 지역의 해외지수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액티브 ETF까지 투자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글로벌 ETF팀이 총 6개국에서 ETF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Horizon(미국, 캐나다, 홍콩, 콜롬비아), TIGER(한국), BetaShares(호주) 등 3개 브랜드 하에 237개 ETF를 운용 중이다.

미래에셋 글로벌 ETF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이태용 사장은 “그 동안 미래에셋은 다양한 글로벌 ETF 라인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글로벌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 뱅크스로 계좌오픈기면 최대 100만원 쏜다

한국투자증권 ‘뱅크스로 오시개’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거래 서비스인 뱅크스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2018년에는, 뱅크스로 오시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대체입고·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뱅크스 계좌로 1000만원 이상 오픈하고 1백만원 이상 거래하면 순입금과 금액에 따라 최대 100

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 또한 주식 거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거래금액 및 조건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축하금이 추가 지급된다.

타사에 보유중인 주식은 별도 매매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거래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온라인(MTS, HTS 및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계좌 미보유 고객



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펀드(Fundapp) 앱에서 뱅크스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신청하면 된다. /김문호 기자

##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중소형주 위주 투자

신한금융투자

일정부분 대형주 투자로 리스크관리

신한금융투자는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펀드’를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펀드’는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이익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작지만 향후 성장성이 예상되는 유망한 종목의 투자를 통한 수익률 확대를 추구하며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일정부분 대형주 투자를 통한 적극적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플러스 텐배거중소형주 펀드’는 단순한 바이&홀드 전략을 지양하며 최적의 투자타이밍 포착을 추구한다. 이는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단순히 기다리는 투자가 아닌 기업의 변화시



점의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이익 성장을 동반한 저평가된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진입해 우수한 장기투자성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김문호 기자